“지역 배구 활기 ‘페퍼스 효과’ …더 많은 관심과 응원 필요”

페퍼 스타디움에서 만난 사람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 AI페퍼스 효과는
인재 양성 후원금·지역출신 영입
유망 선수 육성 등 사회공헌 앞장
학교 클럽 대회 참가 팀도 급증

■ 전 회장의 바람은
페퍼스 성적 안좋지만 계속 격려
장애·비장애인 함께 어우러져
배구 즐기는 환경 만들도록 노력

“광주 AI페퍼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광주·전남 지역민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신다면 성적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줘야할 때입니다.”

전갑수〈사진〉 광주시배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광주일보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AI페퍼스 여자배구단 광주 유치 주역인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관중석을 지켰다. AI페퍼스는 광주에 연고를 둔 첫 프로 배구팀이다. 팬들의 간절한 첫 승 기원에도 페퍼스는 이날 현대전에서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했다. 지난 6일 KGC인삼공사전까지 개막 후 4연패 했다. 팬들도 서서히 실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재를 털어 실업 배구팀을 10년 넘게 운영한 그는 “기다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배구팀을 만들었다면 페퍼스는 이제 1학년입니다. 운 나쁘게도 지금까지 만난 3팀이 우승 후보였습니다. 월드스타 김연경이 가세한 흥국생명, 지난 시즌 1위 현대건설, 올해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우승팀 GS칼텍스입니다. 페퍼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투혼과 간절함이 이어진다면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는 경기 승패도 중요하지만 ‘AI페퍼스 효과’를 주목해줄 것을 당부했다. 페퍼스의 모기업인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광주시와 연고지 협약 당시 배구 인재 양성 후원금 1억원을 쾌척했다. 창단 첫 승을 기념해 경기 입장 수익을 유소년 배구 발전 지원금으로 2개 초교에 전달했다. 조선대, 순천 대석초와 각각 유소년 배구팀 운영, 배구교실 운영 협약을 맺고 선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열린 제15회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배구종목에는 지난 대회보다 26개 팀 증가한 62개 초중고팀이 참가, 페퍼스 창단 효과를 실감케했다. 페퍼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체고 출신 수련선수를 영입했다.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이 프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연고팀 선수를 받아들여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프로 세계에서 연고팀 출신 선수를 꾸준히 영입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좋은 선수들이 지역에서 배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배구선수로 활동한 경기인 출신인 그의 배구 사랑은 ‘진심’이다. 주식회사 백양실업을 경영하면서도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을 지내고 광주시배구협회장,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을 맡는 등 배구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장애인 배구 활성화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최근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지난 10월 1일 ‘2022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구를 즐기는 전국 최초 대회로 평가받았다.

“연고지 광주에서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려는 페퍼저축은행의 의지와 지원으로 열린 대회입니다. 페퍼스 창단 1주년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장애인·비장애인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만들 것입니다.”

전 회장의 꿈은 장애인 좌식배구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다. 장애인 선수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운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장애인배구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 선수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목표도 있다.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배구를 즐기는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스포츠를 바탕으로 화합하는도시, 제가 꿈꾸는 광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이혜경 회장기 유도 ‘금 업어치기’

순천시청 박다솔 은메달

광주도시철도공사 이혜경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2022회장기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혜경은 지난 7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48㎏급 결승에서 유주희(충북도청)에 반칙승(지도3개)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이혜경은 이번 대회 16강에서 김보민(용인대)에 기권승을 거둔뒤 8강에서 이혜인(한국체대)을 곁누르기 한판승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4강에서는 이경하(위덕대)에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둬 결승에 진출했다.

이혜경은 전국체전 금메달에 이어 올해 마지막 대회를 금메달로 마무리했다.

순천시청 박다솔(26)은 여자 -57㎏급 결승에서 허미미(경북체육회)에 패배, 은메달을 땄다.

박다솔은 지난달 전국체전 결승에 이어 이번 대회도 허미미에 발목을 잡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신대철 감독과 이혜경.

가르시아, 여자프로테니스 시즌 최종전 우승

사발렌카 2-0으로꺾어

카롤린 가르시아(6위·프랑스)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022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가르시아는 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WTA 투어 파이널스 포트워스(총상금 5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아리나 사발렌카(5위·벨라루스)를 2-0(7-6〈7-4〉 6-4)으로 물리쳤다.

올해에만 네 번째 WTA 투어 단식 우승을 차지한 가르시아는 WTA 투어 통산으로는 11번째 타이틀을 따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57만 달러(약 21억7000만원)다.

프랑스 선수가 WTA 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한 것은 2005년 아밀리 모레스모 이후 이번이 17년 만이다.

WTA 투어 파이널스는 1년간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상위 8명이 출전해 조별리그에 이은 4강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는 전날 4강에서 사발렌카에게 1-2(2-6 6-2 1-6)로 져 탈락했다.

1993년생 가르시아는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4위에 오르게 됐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는 올해 US오픈 4강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여자 복식에서는 2016년과 올해 프랑스오픈 정상에 오른 경력이 있다.

전날 시비옹테크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 사발렌카는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만 두 차례 더블 폴트가 나와 준우승에 만족하게 됐다.

WTA 대회는 올해 몇 차례 더 열리지만 모두 투어보다 한 등급 낮은 WTA 125 대회들이다.

/연합뉴스

WTA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한 가르시아가 우승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산악연맹 신광철·구일숙 대원 히말라야 아마다블람 정상 등정 성공

전남산악연맹 소속 신광철 대원과 구일숙(이상 여수시산악연맹) 대원이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아마다블람(6812m)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

8일 전남도산악연맹(회장 윤성명)에 따르면 신광철·구일숙 대원은 ‘2022 대한산악연맹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추진한 아마다블람 등정대에 최종 선발돼 각각 등반대장과 총무·회계담당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각 지역 산악연맹소속 대원들과 함께 아마다블람 정상에 올랐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2022~2023 전남방문의 해를 기렸다.

아마다블람(6812m)은 네팔 히말라야 산맥 동쪽, 에베레스트가 있는 쿰부 히말라야에 자리잡고 있다. 안나푸르나 지역의 마차푸차레, 유럽 알프스에 위치한 마터호른과 함께 세계 3대 미봉 중 하나로 꼽힌다.

아마다블람이라는 이름은 주봉(6812m)과 서쪽 부봉(6170m)의 모습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연상케 하고, 주변 빙하가 현지인들이 착용하는 ‘목걸이’ 같다는 뜻으로 붙여졌다.

신광철 대원은 “내년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2022~2023 전남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뜻깊은 등정이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광철 대원이 에베레스트 아마다블람 정상에서 내년 열리는 전남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바둑 신진서, 최정 꺾고 삼성화재배 첫 우승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22) 9단이 여자랭킹 1위 최정(26) 9단을 물리치고 삼성화재배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다.

신진서는 8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온라인으로 계속된 2022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184수 만에 최정에게 불계승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2-0을 기록한 신진서는 대망의 우승컵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지난 2년 연속 삼성화재배 결승에 올랐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가 ‘2전 3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최정은 아쉽게 패했지만, 여자기사로는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35개월 연속 국내 랭킹 1위를 지키는 신진서와 108개월 연속 여자 1위인 최정이 함께 연출한 최초의 세계대회 결승전 ‘성’(性) 대결은 결국 신진서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신진서는 이날 승리로 LG배와 춘란배에 이어 삼성화재배 정상에 오르며 세계대회 3관왕에 올랐다.

GS칼텍스배 프로기전과 용성전 쏘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KBS 바둑왕전 등 국내기전까지 포함하면 7개 타이틀을 보유하게 됐다.

삼성화재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리멤버
2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스마일
3관	자백
4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6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분노의 추격자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걸리버 리턴즈
7관 씨네커플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리멤버,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8관 씨네커플	인생은 아름다워, 블랙 아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⑤
뷔에르 앙상블
일시 : 2022. 11. 21.(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어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일시 :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6